

금융지주 신년사

“본원적 수익기반 공고히”

“디지털 생태계 선도 주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새해 경영전략 ‘R.E.N.E.W 2022’ 제시
글로벌 사업 확장, 비금융사업 성과 가시화

“최고의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넘버원(No.1)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 KB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와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이날 2022년 경영전략 방향으로 ‘R.E.N.E.W 2022’를 제시했다.

R.E.N.E.W 2022는 ▲핵심경쟁력 강화(Reinforce the Core) ▲글로벌 & 비금융사업 영역 확장(Expansion of Global & New Biz) ▲KB스타뱅킹의 역할 확대(No. 1 Platform) ▲차별화된 ESG 리더십 확보(ESG Leadership) ▲인재양성 및 개방적·창의적 조직 구현(World class Talents & Culture)이다.

우선 그룹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본원적 수익기반을 공고히 한다.

윤 회장은 “금리변동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달·운용을 통해 예대마진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더 높은 고객수익률로 실력 있는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기업금융과 캐피탈 마켓 영역의 성장할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비금융사업의 성과도 가시화 한다.

윤 회장은 “동남아시아 지속확장과 선진시장 진출 모색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통신, 자동차, 부동산



KB금융 윤종규 회장(가운데)이 ‘올해의 KB Star 상’을 수상한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등 4대 비 금융 플랫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KB스타뱅킹의 역할을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윤 회장은 “KB스타뱅킹이 그룹의 슈퍼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열사 앱들과 연계와 보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객의 불편한 점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진정한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차별화된 ESG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

윤 회장은 “비즈니스분야에도 넷제로(Net Zero) 설비투자자와 K-뉴딜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탄소배출 감축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등 전 계열사가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임직원들도 일상속에서 친환경 기업문화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KB Green Wave’ 캠페인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창구체계 혁신 통해 맞춤 솔루션 제공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플랫폼 선빌 것”

“디지털 플랫폼을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운영해 디지털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혁신에 우리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신한만의 새로운 핵심가치를 발표했다.

“바르게”는 고개와 미래를 기준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사회를 위한 바른길에 자원을 집중하지는 의미다. “빠르게”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실행의 속도를 높여 빠르게 행동하고 실패를 통한 성장을 이루자는 뜻이며, “다르게”는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조화를 통해 남다른 결과를 창출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조 회장은 “새로운 핵심가치는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 경쟁속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객은 금융사의 규모와 수익이 아닌 경험의 가치에 움직이고 있다. 신한만의 고객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올해 고객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인다.

그는 “향후 10년간 새로운 가치 절반이상이 데이터와 플랫폼에서 창출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 출시를 앞둔 개인뱅킹 뉴 앱(New App)과 종합기업금융 플랫폼 개발에 모든 경험과 역량을 모아 독보적인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영업점도 혁신한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조 회장은 “오프라인 영업점은 테크기업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우리고유의 플랫폼”이라며 “창구체계 혁신을 통해 고객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새롭게 시작한 공급자관계관리(SRM)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경영으로 사회적 금융을 이끌어 나간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국제적인 탄소 중립(Carbon Neutral)정책에 발맞춰 중기 환경비전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했다. 신한만의 차별화된 친환경 금융 전략으로 고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할 뿐 아니라, 산업 내 친환경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조 회장은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아우르는 친환경 금융과 탄소중립을 위한 문화확산에 정성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은행 ESG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생활 속 실천으로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더 멀리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보험업계, 헬스케어 사업 경쟁 ‘후끈’

신한라이프 ‘큐브온’ 설립 가시화
KB손보 KB헬스케어 사업 확장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 경쟁이 본격화됐다. KB손해보험이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신한라이프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큐브온, 신한라이프 미래 성장 기반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최근 헬스케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한큐브온(CubeOn)’ 설립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회사 소유 인허가 신고 수리를 받았다.

신한라이프는 합병 이후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그 일환으로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신한큐브온의 초대 대표로는 이용범 헬스케어사업팀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신한라이프에서 최초로 사내벤처를 맡아 현재까지 지난 3월 론칭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 ‘하우핏(HowFIT)’을 총괄 운영해 오고 있다.

하우핏은 인공지능(AI) 동작인식 기술과 라이브 서비스를 결합한 홈트레이닝 서비스다. KT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IPTV에 하우핏을 탑재하는 등 공동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큐브온은 하우핏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B손보, ‘데이터 사업’ 확대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헬스케어’도 지난해 10월 설립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B헬스케어는

우선 기업 간(B2B) 거래를 중점으로 헬스케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KB헬스케어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통해 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헬스케어부터 웰니스(wellness)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과 연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알고케어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동 사업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추진한다.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약 관리 서비스 사업도 협업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NH농협은행 외화회전예금 상품 출시 이벤트

NH농협은행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외화회전예금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3월 말까지 NH환테크 외화회전예금 I·II 상품 출시를 기념한 환율 우대 및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NH환테크 외화회전예금은 가입시 고객이 목표환율을 직접 지정해 목표환율에 도달하면 자동해지, 도달하지 않으면 자동 회전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농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부터 오는 3월말까지 대고객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통화 환율 90% 우대 ▲총 151명 경품 지급 등 행사를 마련했다. 아울러 1월 한달간 농협은행 SNS계정에 등재된 상품 관련 퀴즈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권소환 기자

KB국민카드, 이창권 신임 사장 취임

“1등 카드사의 위상 회복”

KB국민카드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이창권 대표이사 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창권 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금융규제 강화 그리고 금융업 전반의 파괴적 혁신으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위기가 언제나 성장을 만들어 온 것 처럼 탄탄한 기본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준비를 통해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권 국민카드 사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이 사장은 “격변의 시기를 잘 준비해 1등 카드사의 위상을 회복하고 1위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소환 기자 think@

임영진 “딥플레이로 금융시장 주도권 확보”

(신한카드 사장)

신년사 통해 네가지 어젠다 제시
“1위 생활금융 플랫폼 도약할 것”

신한카드가 1등 사업자의 핵심 역량(Deep)과 플랫폼 기업을 향한 새로운 진화(pLay)를 더한 딥플레이(Deep p Lay)로 올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사진)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경제 변동성, 시장경쟁을 딛고 회원·자산·손익 모

두 힘찬 성장을 이뤘다”며 1위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차별화된 딥플레이 추진을 위한 ▲성장토대 강화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딥테크 기업 도약 ▲문화대전환 네 가지 어젠다 역량을 극대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권소환 기자